

2021년 7월 14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농림축산식품부 수출진흥과 과장 김재형(044-201-2171), 서기관 이수현(2176)/ 제공일: 7월 13일(총 3매)
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과장 김성희(044-200-5480), 서기관 임경은(5481), 사무관 서밀가(5483)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농수산물식품 전용 선박 확보! 수출활성화 도모!

- 미주 노선 임시선박에 농수산물식품 전용 선박 물량 확보 17일 첫 출항 -
- 7월 13일 오후,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-HMM 업무협약 체결 -

《 주 요 내 용 》

- ◆ 농수산물식품의 원활한 수출 지원을 위해 HMM이 운항하는 미주 서안 노선 임시선박에 농수산물식품 긴급 수요 화물을 우선 배정
 - 임시선박에 매월 265TEU(농식품 200TEU, 수산물 65TEU)의 전용 선박을 확보하여 농수산물식품 수출기업을 지원
- ◆ 원활한 업무 지원을 위해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와 HMM은 '수출 농수산물식품 해상운송을 위한 업무협약'을 체결
 - * 일시·장소 : 2021. 7. 13.(화) 14:00, HMM 본사 회의실

□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현수)와 해양수산부(장관 문성혁)는 국내 농수산물식품의 원활한 수출 지원을 위해 국적선사 HMM이 운항하는 미주 서안 노선에 농수산물식품 긴급 수요 화물을 우선 배정하고, 해당 선박이 오는 7월 17일 첫 출항을 한다고 밝혔다.

□ 2021년 상반기 한국 농수산물식품 수출액은 5,404백만 불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.1% 증가하며 역대 최고실적을 기록하고 있다.

* 농식품 4,154백만불, 수산물 1,250백만불

- 지난 6월,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농수산물식품 수출 증가세를 확실히 견인하고, 수출기업이 겪는 선복 확보의 어려움 등 물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
 - 국적선사 HMM이 투입 중인 미주 서안항로 선박에 매월 265TEU(농식품 200TEU, 수산물 65TEU)의 전용 선복을 확보하여 농수산물식품 수출기업을 지원하고 있다.
 - 이를 통해 8월부터 본격적으로 수출되는 조생종 배를 비롯하여, 김치, 김, 어묵 등 농수산물식품 수출 물류 애로가 어느 정도 해소되어 수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 - 1항차 모집 결과, 김치·버섯·즉석밥 등 농식품 16TEU와 김·어묵·소금 등 수산물 14TEU가 신청·접수되었으며, 7월 17일부터 운항을 시작할 예정이다.
- 또한, 원활한 업무 지원을 위해 7월 13일(화) 오후 2시, 한국 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(사장 김춘진, 이하 'aT')와 국적선사 HMM(대표이사 배재훈)은 '수출 농수산물식품 해상운송을 위한 업무협약'을 체결하였다.
 -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HMM은 '21년 하반기(7월~12월)에 운영하는 미주 서안 노선에 농수산물식품 전용 선복을 확보하여 우선 제공하고, aT는 해당 물량의 신청·접수 등 운영·관리와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한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.
 - 수출 농수산물식품의 긴급화물 수요가 있는 기업은 'aT수출업체 종합지원시스템'(global.at.or.kr) 누리집을 통해 선박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, 온라인으로 선복 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.

- 더불어, 중소기업과 소량 화주의 비중이 높은 수산식품의 경우 8월부터 소량혼적화물(LCL)도 선복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.
-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“농수산식품은 품목 특성에 따라 출하 시기가 정해져 있고 신선도 유지가 중요하여 적기 선적이 매우 중요하다.”라고 강조하고,
- “농수산식품 기업의 수출 물류 애로를 해소하여, 수출이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양 부처가 지속 협업하겠다”라고 밝혔다.